

제 1 교시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유교 철학에서 참된 앎에 이르는 길을 밝히는 ‘격물치지(格物致知)’는 오랫동안 중요한 화두였다. 송대의 주희는 이를 성리학적 인식론의 핵심으로 정립하였다. 그에게 ‘격물(格物)’이란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理)를 궁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물(物)’은 단순한 자연물을 넘어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일, 즉 ‘사(事)’를 포괄하며, 경전의 내용이나 도덕적 실천까지도 탐구의 대상이 된다. 주희는 이러한 격물의 방법으로 먼저 마음을 경건히 하는 거경(居敬)을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전을 읽고 일상의 다양한 사태를 깊이 사유하는 점진적 노력을 역설했다. 그는 꾸준한 탐구를 통해 어느 순간 모든 사물의 이치가 환하게 관통되는 ‘활연관통(豁然貫通)’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격물을 통해 얻은 앎을 지극히 하는 것이 ‘치지(致知)’이다. 이는 개별 사물에 대한 앎을 종합하여 만물의 보편적 원리에 대한 통찰을 얻는 단계로, 단순한 지식 축적을 넘어선다. 주희에게 ‘이(理)’란 만물의 존재 근원이자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도덕적 당위 법칙이다. 이 ‘이’는 형이상학적 실체로서 모든 사물과 인간의 마음 안에 내재하며, 그 자체로 선(善)하고 인간의 도덕적 실천과 직결된다. 이러한 ‘이’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설명하는 것이 ‘이일분수설(理一分殊說)’이다. 즉, ‘이’는 근원적으로 하나이지만(理一), 현실에서는 기(氣)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모습(分殊)으로 나타난다. 격물치지는 바로 이 다양한 ‘분수’된 이치를 탐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만물을 관통하는 하나의 보편적 원리, 즉 ‘이일’의 경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방법론이다. 따라서 주희에게 격물치지는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인간의 도덕적 수양과 사회적 실천을 위한 필연적 과정이었다.

(나) 조선 후기, 실학자 최한기는 주희에 의해 정립된 격물치지론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며 전통적 인식론에 중요한 전환을 가져왔다. 그는 당시 유입되던 서양 근대 과학의 영향을 받아 경험과 객관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격물치지를 이해하고자 했다. 최한기에게 ‘격물’이란 외부 세계의 사물과 사회 현상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주희가 경전이나 내면 성찰을 통해 도덕적 이치를 탐구한 것과는 달리, 사물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과 경험을 통한 탐구를 핵심으로 삼는 것이었다. 최한기의 ‘치지’는 감각 기관을 통해 외부의 객관 세계를 정확히 인식함으로써, 그 세계에 내재한 객관적 법칙으로서의 ‘이(理)’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가 파악한 ‘이’는 주희의 도덕적 ‘이’와 달리, 도덕성이 배제된 사물 자체의 객관적이고 필연적인 자연법칙이었다. 그는 이러한 ‘이’가 인간의 마음 안에 선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외부 사

물 속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간의 마음은 선형적인 ‘이’가 없는, 마치 텅 빈 우물물과 같은 상태로 간주되었다. 최한기는 모든 지식이 감각 경험을 통해 얻어진다고 보았으며, 선형적 관념이나 경전의 권위에 의존하기보다는 실제적인 관찰, 이성적인 ‘추측(推測)’, 그리고 엄밀한 ‘증험(證驗)’의 과정을 거쳐 얻어지는 지식을 참된 앎으로 여겼다. ‘추측’은 경험으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아직 경험하지 않은 현상을 미루어 판단하는 것이며, ‘증험’은 이러한 추측을 다시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검증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그의 인식론은 우주 만물의 근원을 끊임없이 운동하고 변화하는 ‘기(氣)’로 보는 기일원론적 관점에 기반하며, ‘이’는 이러한 ‘기’의 내재적 질서 또는 법칙성으로 이해되었다. 이처럼 최한기는 경험과 실증을 바탕으로 객관적 지식을 추구함으로써, 주자학의 경전 중심주의와 도덕주의적 자연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열고자 하였다.

1. (가)와 (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가)에서 주희는 격물의 대상으로 인간의 도덕적 실천까지 포함한다고 보았다.
- ② (가)에서 주희는 꾸준한 이치 탐구를 통해 어느 순간 모든 이치를 깨닫는 경지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 ③ (나)에서 최한기는 인간의 마음이 선형적인 ‘이’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 ④ (나)에서 최한기는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미루어 판단하는 ‘추측’을 중시했다.
- ⑤ (가)와 (나) 모두 ‘이’를 만물의 근원적인 형이상학적 실체로 규정하고 있다.

2. (가)의 ‘이일분수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만물의 다양한 현상(分殊)은 근원적인 하나의 이치(理一)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 ② 개별 사물에 갖는 특수한 이치들을 탐구하는 것은 보편적 원리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된다.
- ③ ‘이’는 현실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근원은 하나로 통한다는 격물치지의 인식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 ④ 기(氣)의 조건에 따라 ‘이’의 본질 자체가 변화하므로, 모든 사물의 이치는 각각 고유하다.
- ⑤ 도덕적 수양보다는 객관적 자연법칙 탐구를 통해 ‘이일’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3. (나)에 나타난 최한기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외부 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과 경험을 지식 획득의 핵심으로 간주했다.
- ② 경전의 권위보다는 객관 세계 그 자체를 진리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자 했다.
- ③ ‘이’를 도덕적 당위성을 지닌 형이상학적 원리로 파악하여 윤리적 실천을 강조했다.
- ④ ‘추측’을 통해 얻은 잠정적 판단을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검증하는 ‘증험’의 과정을 중시했다.
- ⑤ 우주 만물의 근원을 ‘기’로 보고, ‘이’를 ‘기’의 내재적 질서로 이해하는 경향을 보였다.

4. (가)의 주희와 (나)의 최한기가 <보기>의 ‘격물’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학자가 책상 위 사과를 오랫동안 관찰하며 그것의 모양, 색깔, 무게, 맛 등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다른 과일들과 비교하며 사과만의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고자 노력한다.

- ① 주희: 사과에 깃든 천리(天理)를 탐구하는 좋은 방법이군. 다만, 그 탐구가 사과 자체의 객관적 속성을 넘어 인간의 도덕적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성찰해야 하네.
- ② 최한기: 사과에 대한 감각적 경험을 통해 그 객관적 속성을 파악하려는 시도는 좋으나, 먼저 경전에 기록된 성현의 말씀들을 통해 사과의 본질적 의미를 이해해야 하네.
- ③ 주희: 사과의 외형적 특징보다는 그것이 인간의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감흥을 중시해야 진정한 격물이라 할 수 있네.
- ④ 최한기: 사과를 통해 우주 만물의 보편적 이치를 깨닫고자 하는 자세는 훌륭하나, 그것이 인간의 도덕성 함양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무의미한 탐구일세.
- ⑤ 주희와 최한기 모두: 사과라는 개별 사물에 대한 탐구만으로는 참된 앎에 이를 수 없으므로, 보다 근원적인 형이상학적 원리에 대한 사유가 선행되어야 하네.

5. (가)와 (나)를 바탕으로 ‘격물치지’에 대한 두 사상가의 입장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식 대상으로서의 ‘이(理)’에 대해, 주희는 도덕적 원리로, 최한기는 객관적 자연법칙으로 보는 차이가 있다.
- ② 인식 방법론에 있어, 주희는 경전 탐구와 내면 성찰을, 최한기는 감각 경험과 실증적 탐구를 강조하는 대비를 보인다.
- ③ 인간의 마음에 대해, 주희는 선験적으로 ‘이’를 갖춘 것으로, 최한기는 경험을 통해 채워지는 것으로 보는 시각차가 있다.
- ④ 지식의 근원에 대해, 주희는 성현의 가르침과 마음의 자각을, 최한기는 외부 세계에 대한 경험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 ⑤ 궁극적 목표에 있어, 주희는 도덕적 완성에, 최한기는 객관적 지식의 한계 인식에 초점을 맞추는 차이를 드러낸다.

6. ㉠~㉣의 문맥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 정립(定立): 의견이나 이론 따위를 세움.
- ② ㉡ 궁구(窮究): 사물의 이치를 깊이 연구함.
- ③ ㉢ 역설(力說): 자기의 뜻을 힘주어 말함.
- ④ ㉣ 내재(內在): 사물이나 성질 따위가 그 자체의 안에 들어있음.
- ⑤ ㉤ 간주(看做): 무엇을 무엇으로 여기거나 봄.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⑤ [해설] (가)에서 주희는 ‘이’를 만물의 존재 근원이자 도덕적 당위 법칙인 형이상학적 실체로 보았으나, (나)에서 최한기는 ‘이’를 도덕성이 배제된 사물 자체의 객관적이고 필연적인 자연법칙으로 보았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이’를 형이상학적 실체로 규정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최한기는 ‘이’를 경험 가능하고 객관적인 법칙으로 파악했다. ① (가)의 첫 번째 문단에서 주희의 격물 대상인 ‘물’은 “경전의 내용이나 도덕적 실천까지도 탐구의 대상이 된다”고 언급한다. ② (가)의 첫 번째 문단에서 주희는 “꾸준한 탐구를 통해 어느 순간 모든 사물의 이치가 환하게 관통되는 ‘활연관통(豁然貫通)’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③ (나)의 두 번째 문단에서 최한기는 “인간의 마음은 선형적인 ‘이’가 없는, 마치 텅 빈 우물물과 같은 상태로 간주되었다”고 언급한다. ④ (나)의 세 번째 문단에서 최한기는 “실제적인 관찰, 이성적인 ‘추측(推測)’, 그리고 엄밀한 ‘증험(證驗)’의 과정을 거쳐 얻어지는 지식을 참된 앎으로 여겼다”고 하며, ‘추측’을 중요한 인식 과정으로 제시한다.

2. 정답: ③ [해설] (가)의 두 번째 문단에서 이일분수설은 “‘이’는 근원적으로 하나이지만(理一), 현실에서는 기(氣)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모습(分殊)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며, “격물치지는 바로 이 다양한 ‘분수’된 이치를 탐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만물을 관통하는 하나의 보편적 원리, 즉 ‘이일’의 경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방법론이다”라고 하여 격물치지의 인식론적 근거임을 밝히고 있다. ① 이일분수설은 만물의 다양한 현상(분수)이 근원적인 하나의 이치(이일)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② 개별 사물에 깃든 특수한 이치(분수)를 탐구하는 것이 곧 보편적 원리(이일)를 파악하는 길이라고 본다. ④ ‘이’의 본질은 하나로 동일하며, 기(氣)의 조건에 따라 발현되는 모습이 다를 뿐이라고 본다. ⑤ 이일분수설은 주희의 성리학적 관점에서 도덕적 수양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3. 정답: ③ [해설] (나)의 두 번째 문단에서 최한기의 ‘이’는 “도덕성이 배제된 사물 자체의 객관적이고 필연적인 자연법칙”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그가 ‘이’를 도덕적 당위성을 지닌 형이상학적 원리로 파악하여 윤리적 실천을 강조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주희의 관점에 해당한다. ①, ②, ④, ⑤는 (나)에 나타난 최한기의 경험론적, 실증적, 기일원론적 관점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다.

4. 정답: ① [해설] [통합형 문항] <보기>의 상황은 사과에 대한 객관적 관찰과 탐구이다. (가)에서 주희는 격물의 대상을 사물과 일 모두로 보았고,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것을 중시했다. 다만, 그에게 ‘이’는 도덕적 원리와 연결되므로, 사과 자체의 탐구를 넘어 그것이 인간의 도덕적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성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①이 주희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하다. ② 최한기는 경험과 관찰을 중시했으므로 경전의 말씀을 우선하라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③ 주희는 정

서적 감흥보다는 사물에 내재된 이치를 탐구하는 것을 격물로 보았다. ④ 최한기에게 ‘이’는 도덕성과 분리된 객관적 자연법칙이었으므로, 사과 탐구가 인간의 도덕성 함양에 기여해야 한다는 반응은 그의 관점과 거리가 있다. ⑤ 주희는 개별 사물 탐구를 통해 보편적 이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고(활연관통), 최한기는 경험적 탐구를 중시했으므로, 형이상학적 원리에 대한 사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반응은 두 사람 모두에게 적절하지 않다.

5. 정답: ⑤ [해설] (가)에서 주희의 격물치지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도덕적 수양과 사회적 실천을 목표로 한다. (나)에서 최한기는 경험과 실증을 통해 객관적 지식을 획득하고 이를 실용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최한기가 객관적 지식의 한계를 인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그는 경험과 증험을 통해 지식의 객관성과 확실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①, ②, ③, ④는 (가)와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두 사상가의 입장을 올바르게 비교한 것이다.

6. 정답: ① [해설] ① ㉠ 정립(定立): (가)에서 “송대의 주희는 이를 성리학적 인식론의 핵심으로 정립하였다”는 문맥은 ‘이론이나 주의, 제도 따위를 세움’이라는 의미이다. 선택지의 ‘의견이나 이론 따위를 세움’과 의미가 가장 가깝다. ② ㉡ 궁구(窮究): 깊이 연구함. ③ ㉢ 역설(力說): 자기의 주장을 힘주어 말함. ④ ㉣ 내재(內在): 어떠한 범위의 안 또는 그 자체에 들어 있음. ⑤ ㉤ 간주(看做): 어떠한다고 생각하거나 여김.